

Kyung-Hee Kim

From: "육근철" <gdyuk@kongju.ac.kr>
To: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hursday, November 16, 2006 8:12 PM
Subject: Re: Re: Re: Re: 김교수님에게

안녕하십니까 ?
 여기는 초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grant proposal을 쓰시느라고 바쁘군요.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 인간의 창의성은 민족마다. 환경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동양인과 서양인의 창의성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나 요소들의 경중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양인들은 product 중심의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지만, 동양인들은 산출물 보다는 깨달음 중심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PEPC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grant proposal을 내실 때 "동서 융합을 위한 새로운 창의성 모델 개발 및 적용"에 대해서 제안서를 내시면 어떨까요 ?

미국인들도 상당히 흥미있어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박사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 교환교수 프로젝트는 미시건 대학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조지아 대학을 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이곳 총장과 의논해서 교환교수 프로젝트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특히, 우리가 같이 연구하여 창의성에 대한 새로운 장을 하나 열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주대학교 육근철 교수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hu Nov 16 12:08:40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Re: Re: 김교수님에게

미국영재학회에서 논문 세편을 발표하고나니 이제 좀 숨을 돌릴까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grant proposal 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하면요. 어떤 연구를 하기 전에 먼저 프로포절을 내서 합격이 되면 돈을 받아서 그 연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미국에는 지금 그냥 유명 저널에 논문을 실는 것으로는 그 다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랜트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닥터 크레몬드나 저나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랜트를 따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연구는 일단 뒷전이 된 셈이지요.

교수님께서 보내신 데이터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랜트 프로포절로 쓸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럴려면 왜 이연구가 정말로 중요한 지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왜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논술하실 것입니까?

한 논문이 저널에 출판되어 나오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물든 정말로 오래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저널을 직접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쭙어 볼것은요. 지난 번에 공주대학교 총장님과 같이 점심식사 하실 때에 우리들이 잠깐 나눈 대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 교수님들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교수들을 교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랜트 프로포절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면 우리들이 교수님들을 교환할 때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총장님께서 아직도 그런 의향이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몇명 정도를 어떻게 교환했으면 좋겠는지요? 또한 과목도 중요합니다. 주로 어떤 과의 교수님들을 교환하시고 싶으신지요? 또 미국교수님들이 공주대학에 머무를 동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직접가르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목적을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것을 추진하려면 육교수님께서 중간에서 모든 통역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하실 시간이 있으신지요? 기타 등등 의견을 주고 받고 싶습니다.

그럼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Dr. Kyung-Hee Kim](#)

Sent: Wednesday, November 15, 2006 5:51 AM

Subject: Re: Re: Re: 김교수님에게

김교수님에게

안녕하십니까 ?

바쁘시지요 ?

지난번 제가 보내드린 PEPC 모델 적용 data를 받아 보셨는지요 ?

연락이 없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랜드 프로포살이 무엇인지요 ?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지능검사지는

대부분의 학교가 "전국교장단협의회"에서 개발한 지능검사지를 많이 쓰고요, "한국 가이드스"에서 개발한 지능검사지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창의성 검사지는 주로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검사지를 많이 쓴답니다.

JSGE 논문이 나오는데 꽤나 오래 걸리네요. 나오는데로 보내 주겠지요.

김교수님과 같이 연구할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PC를 중학생, 영재반, 교사집단에게 적용한 결과를 보내 드렸었는데 못 받으셨는지요?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육근철 교수 드림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Wed Nov 15 01:46:23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Re: 김교수님에게

안녕하셔어요?

아직도 지난번에 게재한 논문이 출판 중이고요. 나오자 마자 그 저널을 한국으로 보내드릴것
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교육과 관련된 그랜트 프로포절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뭐 좋은 생각이 있으
신지요?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Dr. Kyung-Hee Kim

Sent: Saturday, October 28, 2006 7:47 PM

Subject: Re: Re: 김교수님에게

김교수님에게

메일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번째로 보낸 메일의 첨부파일을 못 읽으셨나요 ?

제가 보낸 파일에는

PEPC프로그램을 한국의 중학교 일반학생, 중학교 선발학생, 대전충남지역에서 선발된 영재학생, 교육경력 5
년 이상의 물리 교사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그 결과자료를 첨부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물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자료도 보내 드립니다.

가능하면 미국의 학생, 교사들에게 수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제 홈페이지에 학생용, 교사용이 있습니다. 그 것을 수여하면 될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Cramond교수를 만나면 지난번 투고한 논문이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하고요, 나왔으면 별쇄본과 잡지 한권을
보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김교수님이 받아서 보내 주시면 더 좋고요.

육근철 교수

----- 메일의 원문 -----

From: "Dr. Kyung-Hee Kim"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Fri Oct 27 12:26:00 KST 2006

To: "육근철" <gdyuk@kongju.ac.kr>

Cc:

Subject: Re: 김교수님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받으셨다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닥터 크레몬드, 마가렛, 행은씨 이렇게 세 사람에게 따로 따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네요. 사실은 그것은 판매용인데 아무도 나더러 돈내라는 사람이 없네요.

11월 초에 미국영재학회에서 논문 세편을 발표해야하는데 닥터 크레몬드이름을 제가 넣어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저 혼자만 죽으라고 발표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닥터 크레몬드는 안보면 잊어먹고 또 들었던 것도 다 까먹어버리니 자꾸자꾸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야만 합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물어 볼까요 이번에 만나면?

Kyung-Hee Kim, Ph.D.

Assistant Professor of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313K Porter College of Education Building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 48197

----- Original Message -----

From: 육근철

To: kyungheekim556@hotmail.com

Sent: Thursday, October 26, 2006 8:30 AM

Subject: 김교수님에게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지요 ?

오늘 UGA에서 Torrance 박사에게 관한 video tape를 받았습니다.

PEPC프로그램을 한국의 중학교 일반학생, 중학교 선발학생, 대전충남지역에서 선발된 영재학생, 교육경력 5년 이상의 물리 교사들에게 수여하였습니다. 그 결과자료를 첨부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물리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자료는 용량이 커서 따로 보내겠습니다..

가능하면 미국의 학생, 교사들에게 수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제 홈페이지에 학생용, 교사용이 있습니다. 그 것을 수여하면 될 것입니다.

김 교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떠날때 JSGE에 투고한 논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없습니다.

Cramond 교수에게도 소식이 없고요.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1월 중에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신지요.

있으면 영재연수에 모시면 어떨까 합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육근철 교수 드림

